

투데이

‘물염치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또 추진

광주·전남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3% 뿐

광주시·5개區·전남도의회 의견 모아 태풍 피해 22개 시·군의회 동결 대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의회가 태풍 피해와 경제불황 등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모두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대조된다. 24일 광주·전남지역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모두 동결한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지

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모두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광주 5개 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의회가 태풍 피해와 경제불황 등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모두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대조된다. 24일 광주·전남지역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모두 동결한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지

되지 않아 사설 보좌관 지원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각종 물가 상승과 7대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의정비가 낮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의정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의정비(4960만원)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충북이 가장 높고 광주 5개 구의회는 의정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의정비 2.2%(105만원)를 인상해 내년에도 올리면 2년 연속이 된다. 특히 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광주 5개 기초의회도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동구의회는 올해 3108만원에서 3390만원으로, 9.1% 인상할 계획이다. 서구의회는 3507만원에서 3815만원으로, 8.8% 오른 3815만원을, 남구의회는 3468만원에서 2.8% 오른 3566만 원을, 북구의회는 3540만원에서 3584만원으로 1.2% 인상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3488만원에서 3691만원으로 5.8% 가장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5개 자치구 의회가 모두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북구의회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6년째 의정비를 인상하는 기초의회가 된다. 한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전남도의회도 22개 시·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모두 동결한 반면 전남도의회는 태풍 피해 등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할 것”

전체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무려 83%를 차지한 반면, 광주·전남 대학 출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2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 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등 전체 고위공무원 1527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451명(29.5%), 연세대 출신 139명(9.1%), 고려대 출신 132명(8.6%)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새 30명이 늘어난 수치다. 다른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도 550명 (36.0%)에 달했다. 이에 비해 지방대 출신은 242명 (15.8%)에 그쳤으며 그나마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47명으로 3%에 불과했다. 전남대 38명, 조선대 6명, 목포해양전문대 2명, 대불광대 1명 등이다. 20~30년 후 고위공무원단이 될 가능성이 큰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도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이 무려 94%에 달한 데 반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출신 합격자는 전남대 3명, 전남대 3명, 전남대 3명 등이다. 현재 고위공무원 배출 상위 20개 고교(졸업자 기준)에 들어 있는 광주·전남지역 고교는 광주제일고와 광주고 2곳뿐이었다. 광주제일고 출신 고위공무원은 2009년 6월 기준

44명인 것이 올해 6월에는 33명으로 11명 줄었고, 광주고 출신은 2009년 23명인 것이 올해는 17명으로 6명 줄었다. 전북적 명문고교인 경기고·경복고·서울고·경북고 출신 고위공무원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지방 고교와 대학 졸업자의 고위공무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특고, 자사고와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의 고시합격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향후 20~30년 후에는 지역간 인재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은 지방대학 육성법(가칭) 제정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주호 교과부 장관 오늘 과기원 ‘필통특’ 참석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5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열리는 과기부 현장 소통 프로그램 ‘필통(必通)특(Talk)’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젊은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광주·전남지역 교수 및 석·박사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



직접자사 추석선물 준비 민족의 명절 추석을 6일 앞둔 24일, 대한직접자사 광주·전남지사서에서 직원들이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할 구호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국가채무 연 이자 20조 국민 1인당 43만원 꼴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추계인구(5000만4441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이 43만원인 셈이다. 국가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채무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 우선접종 44만5천명 내달 8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전남도는 올 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8일부터 일선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 44만50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6개월 이상 6세 아동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이며 시군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한다. 또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예방접종 희망자는 일부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이 가능하다. /오광록기자 kroh@

알림

제7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강당 주제군 교수의 ‘대장암의 현재와 미래’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8일 제71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주제군 교수의 ‘대장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

- 주 제 : ‘대장암의 현재와 미래’
강 사 : 주제군 대장항문외과 교수



-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위장학회
-대한내시경장경학회
-대장암과 항문질환 전문진료

- 일 시 : 9월 28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호남고속철 등 내년 SOC 투자 8천억 증액

광주U대회 본격 투입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에 중점투자하는 등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고, 수출 금융지원을 80조원으로 올해보다 10조원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SOC 투자확대 ▲수출지원 강화·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SOC 투자는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된 23조9000억원이며, 4대 강 살리기 사업(3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종철도 예산은 주로 호남고속철과 경부 KTX,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주로 투자한다. 또 항만 예산은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으로 5078억원을 배정했으며, 국외건설 지원 예산은 349억원으로 올해보다 126억원 늘었다. 30대 선도사업(엑스포 관련 사업 제외)에 투자하는 재정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불어나 평균 통계를 넘어서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원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핵심추진 과제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에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 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1. 경매 일반투자
2. ...
3. ...
4. ...
5. ...
\* 저희 한국공인중개사는 광주전역 및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외 전남 전지역에 방대한 물건중 그중 투자수익율이 보장된 확실한 검증된 물건을 추천 중개 및 경매 참여하여 드리는 광주권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 대외 부동산입니다.
\* 광주, 전남 전지역 부동산 매물 접수합니다.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정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통,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통, 상가, 토지, 모델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경향 광주 서구 농성동 64-5 네오비 카페04서 hankookland.com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향상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화된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증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완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도 매우 쉬우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완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완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90204-중-4738호